민간 우주정거장 시대… 보령, 우주의학 인프라 준비 '착착'

美 우주 기업 2곳에 7000만弗 투자
민간 우주정거장 독점 사업권 확보
우주의학 실험 플랫폼 공동개발

국내 스카이랩스 '카트' 도입 협약
고혈압 신약 '카나브'로 뒷받침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보령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임동주 보령 전략사업본부장(왼쪽)과 이병환 스카이랩스 대표가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령은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우주의학'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선제적 투자는 물론, 실제 연구 수요를 수주하는 '글로벌 우주 생명과학 인프라 공급자'로 체질 개선까지 이뤄내고 있다. 오는 2030년 민간 우주정거장 시대를 앞두고 K제약의 우주 영토 선점과 수익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3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우주의학 전진기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 글로벌 파트너십 조성, K제약·바이오 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령은 지난 2022년 세계 최초 민간 우주정거장(ISS) 선도기업인 미국 액시엄 스페이스에 6000만 달러(약 800억원)를 투입했다. 국내 제약사가 우주 산업 생태계에 진입한 최초, 최대 규모다. 이어 2024년 1월 액시엄 스페이스와 합작법인 '브랙스 스페이스'를 설립했다. 보령 지분은 51% 수준이며 저궤도 민간 우주정거장의 국내 독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또 민간 최초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 우주 전문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에 1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며 달 착륙선과 탐사 차량 기반의 우주의학 실험 플랫폼 공동개발 업무협약까지 이끌어냈다.

이처럼 보령의 첨단 영역 연구개발 파트너십은 청사진을 넘어 실제 국내외 기관들이 찾아와 기술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성과를 내고 있다. 보령은 지난달 독일우주청(DLR)을 '1호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며 맞춤형 설계 역량을 입증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스카이랩스와 손을 잡았다. 우주인 생체신호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및 우주의학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카이랩스의 반지형 혈압계 '카트'를 보령 우주의학 연구개발 인프라에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령이 국산 고혈압 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를 개발하며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입증한 본업인 제약 경쟁력까지 더해진다. 개발 경험과 임상 노하우를, 국내 기업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K우주의학 발전에 적극 이식한다는 방침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분석에 따르면 미세 중력 환경에서 체액이 상체로 이동할 때 심혈관계는 급격한 영향을 받는다. 우주비행사의 경우, 한 달에 최대 1.5%의 골밀도 감소, 최대 30%에 달하는 근력 저하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생체신호를 실시간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술은 우주인 생명 유지뿐 아니라 지상에서 발생하는 난치성 심혈관질환, 만성질환 등에도 쓰일 수 있다.

보령의 전방위적 행보와 함께 우주의학 시장의 성장성은 글로벌 및 국가 R&D 정책에서도 주목받는다.

올해 3월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우주 의약품 제조 규제 경로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 보건의료 혁신 프로젝트인 '한국형 ARPA-H'를 통해 우주 환경을 응용한 의약학 난제 극복 과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보령 임동주 전략사업본부장은 "국내 헬스케어 기업 가운데서도 우주를 바라보는 곳이 나타났고 스카이랩스와 함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국내 시장이 잘 성장하길 기대하고 보령이 확보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공지능 신약개발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과거 우주는 인류가 질병을 극복하는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미지의 세계였지만 이제는 미국 등 선발 주자와 기술 격차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보령을 주요 플레이어로 꼽고 있는 만큼 보령이 글로벌 추격 속도를 단축하는 동시에,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을 이끌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 마련되는 계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제형 최적화 도구로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

루나X피카소 콜라보 에디션 3종
제품 본연 기능·장점 최대로 경험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가 35년 업력의 메이크업 도구 전문 브랜드 '피카소'와 손잡고 제품 제형에 최적화된 전용 도구를 결합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인다. 화장품 내용물과 도구 사이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루나는 피카소와 협업해 베이스 메이크업의 밀착력과 표현력을 높이는 '루나X피카소 콜라보 에디션 3종'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루나가 쌓아온 베이스 메이크업 제형 노하우에 피카소의 도구 개발 전문성을 더해, 제품 본연의 기능과 제형적 장점을 최대로 경험할 수 있다. 제품별 제형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피카소가 전용 도구를 맞춤 개발했다.


'루나X피카소'. /애경산업

'롱래스팅 컨실 쿠션'에는 고밀착을 위한 코팅 퍼프를, '컨실 블렌더 팔레트'에는 굴곡진 얼굴 부위에 활용 가능한 미니 삼각 퍼프를 탑재했다. '멜티드 치크밤'에는 제형을 뭉침 없이 퍼뜨릴 수 있는 클라우드 마이크로 치크 퍼프를 적용해 자연스러운 블렌딩을 돕는다.

루나 브랜드 관계자 "청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 기반의 피카소 기술력이 기존 베이스 메이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도 손쉽게 피부 표현을 구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LG화학, 희귀비만 치료제 개발·상업화

美 리듬 파마슈티컬스와 '맞손'
비바멜라곤 라이선스 계약 개정

LG화학은 3일 미국 희귀질환 전문 바이오 기업 '리듬 파마슈티컬스(Rhythm Pharmaceuticals, 이하 리듬)'와 경구용 MC4R(Melanocortin-4Receptor) 작용제 '비바멜라곤(Bivamelagon)'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개정(Amend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바멜라곤'은 LG화학이 자체 연구개발하여 2024년 1월 임상 1상 단계에서 리듬에 글로벌 라이선스-아웃한 신약물질로, 시상하부 비만 등의 희귀비만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혁신신약이다. 리듬은 시상하부 비만(HO) 환자 임상 2상을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으며, 글로벌 임상 3상 연내 진입을 준비 중이다.

양사가 최초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1억 달러를 포함, 총 규모 3억500만 달러였으며, 별도의 판매 로열티는 리듬 MC4R 전체 포트폴리오(RM-718) 매출 대상으로 '비바멜라곤'의 허가 적응증 수에 따라 상향되는 구조였다.

양사는 이번 계약 개정을 통해 총 규모를 8억5500만 달러(약 1조1500억원)로 확대했고, 판매 로열티 구조를 단순화했다. LG화학은 올해부터 4년간(2026년~2029년) 총 3억5000만 달러(약 4700억원) 규모의 추가 선급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매년 양사 합의하에 선급금을 로열티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발·허가 및 판매 마일스톤 달성 기준을 완화하여 수익 확보 가능성을 높였고, 마일스톤 규모도 기존 계약에서 2억 달러 추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아모레퍼시픽
인삼으로 피부장수 실현

아모레퍼시픽이 독자 구축한 인삼 연구에 최신 세포생물학 성과를 접목해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차세대 피부과학을 강화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일 서울 아모레퍼시픽 세계 본사에서 '제2회 설화수 롱제비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삼 과학을 통한 피부 장수 연구'를 주제로 열려 60년 인삼 연구의 다음 단계로 '세포 정체성 회복'을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만의 원료들이 갖춘 과학적 기전을 규명해 임상 근거를 축적하는 연구 성과도 대거 공개됐다.

아모레퍼시픽과 존스홉킨스 의대의 공동연구 발표에서는 핵심 성분 '림파낙스'와 피부 면역의 상관관계가 소개됐다. 림파낙스는 인간 피부 조직에서 면역 균형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레드플라보노이드' 역시 피부 노화 징후를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1700억 국민성장펀드로 美 공략

알리글로 피하주사 개발 박차

GC녹십자가 미국 시장에서 안착한 정맥주사형(IVIG) 면역글로불린 '알리글로'에 이어, 환자 자가 투여가 가능한 차세대 피하주사형(SCIG) 제형 개발을 본격화하며 20조원 규모의 미국 면역글로불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GC녹십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금융 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총 1700억원 규모의 미국향 '20% SCIG' 개발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자금을 오는 202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3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하고 전용 생산을 구축하는 데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 시장 내 제형 다변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다. 최근 글로벌 면역글로불린 시장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정맥주사보다 자가 투여로 환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피하주사 제형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상용화된 20% 고농도 SCIG는 단 3종에 불과해, GC녹십자는 임상 데이터와 생산 체계를 조기에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미충족 의료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GC녹십자는 2023년 미국 FDA에서 알리글로 품목허가를 받았고 2025년에는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알리글로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아울러 최근 미국 바이오텍 '큐레보 백신' 매각, 파브리병 치료제 후보물질 'LA-GLA' 기술수출 등으로 대규모 현금 창출을 이뤄내 알리글로 후속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무적 위험도 해소하고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GC녹십자 해외 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알리글로 미국 진출에 이어 20% SCIG까지 성공시켜 면역글로불린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제약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프라바펜캡슐'로 잔여 심혈관 위험 잡는다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동화약품, 발매기념 학술행사

동화약품이 스타틴 단일제 처방만으로는 조절하기 어려웠던 '잔여 심혈관 위험'을 관리하고 환자 복약 편의성을 개선한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프라바펜캡슐'의 임상적 활용 전략을 공유했다.

동화약품은 지난달 31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내 주요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프라바펜캡슐' 발매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진료지침과 한국인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LDL-콜레스테롤혈증과 고중성지방혈증을 동반하는 환자별 맞춤 치료를 제시했다.

'프라바펜캡슐'은 프라바스타틴나트륨 40mg과 페노피브릭산 110mg을 결합한 복합제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LDL-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동시에 중성지방 감소 및 HDL-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갖췄다.



지난 10월 31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프라바펜캡슐' 학술행사 전경. /동화약품

특히 관상동맥심질환(CHD) 고위험군 중 스타틴 치료 후에도, 중성지방 수치는 높고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은 잔여 위험이 남아있는 환자에게 투약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